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조 아 미[†]

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9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조사하고, 둘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셋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성별과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그리고 진로성숙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그리고 진로성숙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그리고 진로성숙에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셋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 성역할정체감

조아미는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조 아 미, (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전화 : 02-300-1517 E-mail : choami@mju.ac.kr

직업심리학이나 진로상담 분야에서는 진로선택에서의 성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각각 다른 직업에 종사해왔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인식된 소수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봉급수준이 비교적 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Nevill & Schlecher, 1988). 여성들의 직업선택이 아직 성역할과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점차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있다(Betz, Heesacker, & Shuttlesworth, 1990). 최근에는 남성지배적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Betz & Fitzgerald, 1987), 여성지배적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Betz, Heesacker, & Shuttlesworth, 1990).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로선택에 있어서는 성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이제까지는 진로발달 분야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성차가 강조되어 왔으나 이보다는 성역할정체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urnett, Anderson, & Heppner, 1995; Matsui, 1994). 성역할정체감은 그 사회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 개인의 성별 특장적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장휘숙, 1999), 생물학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발전하는 개념이다. 성역할정체감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가지 성역할정체감을 의미했다. 남성성은 활동적이고 야망있고 직접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과제지향적인 것 등을 포함하는 반면 여성성은 친절하고 자기희생적이고 복종적이고 의존적인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Bem(1974)은 성역할정체감에는 남성성과 여성성 이외에 양성성과 미분화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성역할정체감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의 네가지로 알려지고 수용되었다.

성역할정체감은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첫째, 특정 집단의 성역할정체감 분포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학령전 아동(한정신 등, 1994) 으로부터 성인(장하경·서병숙, 1992)까지의 각 발달단계에 속하는 개인의 성역할정체감 분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부모(한정신 등, 1993), 교사(서대룡, 1996), 상담자(최혜림·김영희, 2000) 등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정체감 분포에 관한 연구도 있다. 둘째, 성역할정체감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자아개념(이영숙, 1996; 조인선, 1986), 자아존중감(유가호, 1994), 자아실현(이홍림, 1985), 심리적 건강(장재정, 1987; 전은경, 1992), 성공회피동기(임수정, 1987)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역할정체감과 개인의 진로발달을 관련시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이송자, 1994; 김희정, 1987; 이병인, 1991). 성역할정체감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에 관한 연구가 지금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특성 차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성차에서 온 것인 경우보다는 성역할정체감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계식과 이재창(1997)에 의하면 성공공포에 대한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역할정체감에 따라서는 성공공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은경(1994)도 성별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의존적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역할정체감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남성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성공공포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고 합리적 혹은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에 따라 그러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만 수행되어 왔던 연구분야인 성역할정체감과 진로발달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진로관련 변인(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조사하고, 둘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셋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하고자 한다.

진로관련 변인(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의 관계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은 Crites의 진로성숙이론에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접목시킨 것(Taylor & Betz, 1983)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Mazurek & Shoemaker, 1997).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개인은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업이나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성숙의 경우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는 달

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형 진로성숙검사를 개발한 이기학의 정의에 의하면 진로성숙은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결정성 차원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준비성 차원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독립성 차원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목적성 차원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 지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확신성은 진로선택 문제에 대해 개인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한편 진로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성숙, 그리고 진로의사결정의 관계는 Taylor와 Betz(1981)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과 Crites이 진로성숙이론을 기초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이론을 새롭게 발전시켰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진로성숙태도가 높을 것이고, 진로의사결정 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Luzzo, 1993a).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특정 영역에서 실제로 행동을 옮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진로의사결정에 대해 좀 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므로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적극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국외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으나(Luzzo, 1993a; Talor & Betz, 1983),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기학·이학주, 2000; 조아미, 2000).

성별, 성역할정체감, 진로관련 변인의 관계

성별, 성역할정체감, 그리고 진로관련 변인(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성역할정체감, 그리고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관계를 보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은 성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Luzzo, 1993b; Peterson, 1993; Taylor & Betz, 1983; Taylor & Popma, 1990).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2000; 조아미, 200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현주(2000)의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5개 하위영역 중에서 장래계획수립 효능감, 문제해결 효능감, 그리고 자기평가 효능감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장래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에 있어서 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이다. 조아미(2000)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을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분석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있어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 남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 높다는 것이다.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성별의 관계의 경우 외국의 연구결과로는 이 두 변인의 사이에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의 연구결과로는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가 지금으로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잠정적으로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우리나라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남학생들과 커다란 차이없이 자신감을 가

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여학생의 경우에는 진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성차별을 겪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감이 남학생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역할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기 때문에 성별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관계보다도 결론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Gianakos(1995)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 성역할정체감의 네 유형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후비교분석 결과,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정체감 사이에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미분화 정체감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개인보다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Matsui(1994)도 도구성(남성성)이 남성지배적 직업과 여성지배적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표현성(여성성)은 여성지배적 직업의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은 성별 자체보다는 성역할과 관련된 특성이 더 상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로성숙의 경우 국외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진로성숙에는 성차가 없거나(Luzzo, 1993b), 여학생의 진로성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uzzo, 1995).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조아미(2000)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은 진로성숙 수준을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을 진로성숙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목적성과 확산성의 경우에는 전체 진로성숙 수준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준비성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는 목적성과 준비성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태도를 보이고 있고 확신성과 독립성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성숙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 혹은 문화적 차이로 해석될 수 있으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Hartman 등(1987: Larson, Butler, Wilson, Medora, & Allgood, 1994에서 재인용)은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외적 장애가 많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진로의사결정 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진로미결정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고 했다. Bergeron과 Romano(1994)도 성별은 직업미결정의 세 수준(결정, 임시결정, 미결정)과 의미있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조아미(2000)와 이현주(2000)도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계식과 이재창(1997)에 의하면 성역할정체감 유형 중 주동성, 공격성, 그리고 이타성은 학교적응, 직업계획, 전공의 진로결정 수준과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고, 연약성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동성과 공격성은 남성성 정체감이고 이타성과 연약성은 여성성 정체감이다.

성별, 성역할정체감, 그리고 진로관련 변인(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성별보다는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과 더 관계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로관련 변인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보다는 성역할정체감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95명의 청소년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28명(46.2%)이고 여학생이 265(53.8%)이다.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중학교가 270명(54.5%)이고 고등학교가 225명(45.5%)이다. 중학생들은 2개의 남녀공학 중학교의 재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은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95명),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64명), 인문계 남녀공학 고등학교(66명)의 재학생들이었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영희(1988: 송은경, 1994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한국형 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Fouad, Smith, 그리고 Enoch(1997)의 중학생용 자기 효능감 척도 중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척도,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Osipow, Carney, 그리고 Barak(1976)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척도,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검사를 사용했다.

한국형 성역할검사는 남성성 변인을 측정하는 15문항, 여성성 변인을 측정하는 15문항, 그리고 중성성 변인을 측정하는 1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7점 척도로 개발되었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류방식은 중앙치 분리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치를 기준으로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의 점수를 이분화한 후 개인의 점수가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 모두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성 정체감, 남성성 변인은 중앙치보다 높고 여성성 변인은 낮으면 남성성 정체감, 남성성 변인은 중앙치보다 낮고 여성성 변인은 높으면 여성성 정체감, 그리고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 모두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되도록 되어있다. 한국형 성역할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가 남성성 변인 .86, 여성성 변인 .76, 그리고 중성성 변인은 .69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88; 송은경, 1994에서 재인용).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척도는 Fouad, Smith, 그리고 Enochs(1997)가 개발한 중학생용 자기효능감 척도 중에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을 측정하는 12 문항을 사용했다. 이 문항들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척도에서 발췌한 것이다. 원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언어가 중·고등학생에게 적절하지 못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을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고, 원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은 50문항으로 길지만 Fouad, Smith, 그리고 Enochs(1997)는 12문항으로도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12문항의 신뢰도는 .79이다(Fouad, Smith, & Enochs, 1997).

진로결정척도는 Osipow, Carney, 그리고 Barak (1976)이 내담자와의 면접을 통해서 개발한 도구로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2문항은 교육-진로선택에 대한 확실성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고, 다음의 16가지 문항은 4점 척도로 진로미결정의 선행요인들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

다. 마지막 문항은 16가지의 선행요인 중 타당한 원인이 없을 때 그 외의 진로미결정 원인을 자유 반응식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 진로결정척도의 점수범위는 16 - 6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전체적인 진로미결정 점수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요인분석을 통해 진로미결정 원인을 진단할 수도 있다.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는 두 집단에 있어서 .90과 .81로 모두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4개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sipow, Carney, & Barak, 1976).

이기학(1997)의 진로태도검사는 Parsons의 특질-요인이론과 Crites의 발달이론을 동시에 적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검사는 청소년이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때 실제로 갖게 되는 태도를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차원에서 측정하도록 고안된 도구로 5점 척도의 4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태도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가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그리고 독립성 .75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로운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다섯 개의 하위영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는 200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수집되었고, SPS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χ^2 검증, t검증, 일원분산분석과 Tukey의 사후비교분석, 그리고 최적척도 회귀분석(optimal scaling regression)을 실시했다. 최적척도 회귀분석은 네델란드의 Leiden 대학 교수팀들이 독립변수가 명명척도나 서열척도인 경우 별도의 조작없이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SPSS 10.0 version에 새로 삽입된 프로그램이다.

결 과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

전체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미분화 정체감이 가장 많은 33.7%이고 그 다음이 양성성 정체감 30.6%, 남성성 정체감 18.5%, 여성성 정체감 17.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남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성성 정체감, 양성성 정체감의 순이었으며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남학생은 매우 적은 편인 것을 나타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여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분화 정체감, 여성성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의 순이었다. 남학생 중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

와 여학생 중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는 각각 28.9%와 25.3%로 전체의 1/4이 넘었다. 한편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여학생과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남학생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청소년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으로는 미분화 정체감이 4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양성성 정체감 23.5%, 남성성 정체감 21.3%, 그리고 여성성 정체감 11.9%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들은 아직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성별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양성성 정체감이 그 다음이고, 여성성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의 순인

표 1.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전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전체
남학생	62(27.2)	66(28.9)	18(7.9)	82(36.0)	228(46.2)
여학생	89(33.6)	25(9.4)	67(25.3)	84(31.7)	265(53.8)
전체	151(30.6)	91(18.5)	85(17.2)	166(33.7)	493(100.0)

주. 명(%)
 $\chi^2 = 40.07, p = .000$

표 2. 학교급별과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양성성	28(20.6)	35(26.5)	63(23.5)	34(37.0)	54(40.6)	88(39.1)
남성성	41(30.1)	16(12.1)	57(21.3)	25(27.2)	9(6.8)	34(15.1)
여성성	7(5.1)	25(18.9)	32(11.9)	11(12.0)	42(31.6)	53(23.6)
미분화	60(44.1)	56(42.4)	116(43.3)	92(40.9)	28(21.6)	50(22.2)
χ^2	$\chi^2 = 21.95, p = .000$			$\chi^2 = 24.26, p = .000$		

주. 명(%)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남성성 정체감이 그 다음이고, 양성성 정체감, 여성성 정체감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여성성 정체감이 가장 낮고 여학생의 경우도 남성성 정체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남학생이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보다 여학생이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양성성 정체감을 많이 가진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학생이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보다 여학생이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가 훨씬 적었다.

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은 39.1%였다. 그 다음이 여성성 정

체감 23.6%, 미분화 정체감 22.2%, 그리고 남성성 정체감 15.1%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양성성 정체감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남성성 정체감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미분화 정체감, 여성성 정체감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여성성 정체감, 미분화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와 비교해 볼 때, 남자 고등학생은 미분화 정체감 유형이 감소한 반면 양성성 정체감이 많이 증가했고 여성성 정체감은 약간 증가했다. 여자 고등학생도 미분화 정체감 유형이 감소한 반면 양성성 정체감과 여성성 정체감은 많이 증가했고 남성성 정체감은

표 3. 성별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성숙의 차이(고등학생)

진로관련 변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남자	43.12	5.71	1.24	n.s
	여자	42.25	4.71		
진로 의사결정	남자	44.78	9.90	.51	n.s
	여자	44.16	8.49		
진로성숙(전체)	남자	159.16	20.29	1.56	n.s
	여자	155.24	17.25		
결정성	남자	32.70	9.42	1.50	n.s
	여자	30.90	8.46		
목적성	남자	22.08	7.53	2.20	.029
	여자	20.25	5.00		
확신성	남자	32.32	6.82	3.12	.002
	여자	29.57	6.26		
준비성	남자	37.02	6.49	-2.71	.007
	여자	39.22	5.64		
독립성	남자	35.05	6.50	-.32	n.s
	여자	35.30	5.13		

다소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성숙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성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성숙(전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인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목적성과 확신성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준비성이 높았다. 이것은 청소년집단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성숙의 차이가 없었고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에서도 성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 진로성숙의 차이는 없었지만 진로성숙의 하위영역 중에서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은 목적성과 확신성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은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준비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성숙의 차이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성숙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의 다섯 개 하위영역(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도 모

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Tukey의 사후비교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양성성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 여성성 정체감, 미분화 정체감에 따라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성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경우 양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양성성 정체감과 여성성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그리고 남성성 정체감과 여성성 정체감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이 미분화 정체감이나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도 미분화 정체감이나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양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사이에만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이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진로 의사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진로성숙의 경우 양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양성성 정체감과 여성성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과 여성성 정체감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이 미분화 정체감이나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진로성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도 미분화 혹은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진로성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진로성숙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결정성의 경우 양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양성성 정체감과 여성성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그리고 남성성 정체감과 여성성 정체감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확신성의 경우

표 4.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성숙의 차이

진로관련 변인	성역할정체감 유형	평균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sig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양성성	44.55				
	남성성	43.43	1161.13	387.04	14.62	.000
	여성성	40.51				
	미분화	39.70				
양성성	46.80					
진로 의사결정	남성성	46.15	257.12	85.71	1.23	n.s
	여성성	43.69				
	미분화	44.35				
	양성성	162.26				
진로성숙(전체)	남성성	160.87	2722.86	1361.43	16.16	.000
	여성성	150.93				
	미분화	146.81				
	양성성	34.54				
결정성	남성성	33.33	2488.71	829.57	12.37	.000
	여성성	30.40				
	미분화	29.39				
	양성성	20.34				
목적성	남성성	21.45	86.49	28.83	.79	n.s
	여성성	21.27				
	미분화	20.90				
	양성성	35.59				
확신성	남성성	34.40	2702.23	900.74	23.64	.000
	여성성	28.05				
	미분화	29.23				
	양성성	39.49				
준비성	남성성	36.12	3105.12	1035.04	31.21	.000
	여성성	37.29				
	미분화	33.32				
	양성성	35.30				
독립성	남성성	35.57	260.55	86.85	2.58	.053
	여성성	33.93				
	미분화	33.98				

양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양성성 정체감과 여성성 정체감 사이
 과 여성성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그리고 남성성 정체감과 여성성 정체감 사이
 에 차이가 있었으며, 준비성의 경우 양성성 정체

감과 미분화 정체감, 양성성 정체감과 남성성 정체감, 양성성 정체감과 여성성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그리고 여성성 정체감과 미분화 정체감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양성적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이 미분화 혹은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결정성과 확신성이 높고,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도 미분화 정체감이나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결정성과 확신성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은 미분화, 남성성,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준비성 수준이 높고, 남성성 혹은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은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준비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척도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에 모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전체 변량의 15.6%, 진로의사결정 전체

변량의 1.8%, 그리고 진로성숙 전체 변량의 14.6%를 설명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나 진로성숙에 비해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타계수를 통해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 모두에 있어서 성별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영향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만 수행되어 왔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진로발달 분야(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의 연구를 통해서 첫째,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조사하고, 둘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셋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점과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성별과 학교급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가

표 5. 최적척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R ²	Adj. R ²	F	sig F
진로의사결정효능감	성별	-3.78E-02	.160	.156	46.52	.000
	성역할정체감	-.396				
진로의사결정	성별	-2.92E-02	.022	.018	5.54	.004
	성역할정체감	-.143				
진로성숙	성별	-3.02E-02	.150	.146	43.13	.000
	성역할정체감	-.384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양성성 정체감 비율이 높고 미분화 정체감의 비율은 낮았다. 이것은 중학생 때 미분화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양성성정체감이나 다른 성역할정체감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학생의 경우 남성성 정체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었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여성성 정체감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여성성 정체감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남성성 정체감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여성성 정체감이 증가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성성 정체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남성성 정체감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감소하는 현상은 여학생들이 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압력에 조금씩 적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학생의 여성성 정체감이 증가하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여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보다 어떤 면에서는 여성적인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남학생들의 여성성 정체감이 증가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보면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고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이면서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와 여학생이면서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는 전체의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남성적 혹은 여성적 경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학생이면서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와 여학생이면서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는 10% 미만으로 적

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송은경(1994)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했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 대상에서 온 것일 수 있다. 즉 송은경(1994)의 경우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은경의 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미분화 정체감 비율은 30.2%이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미분화 정체감 비율은 44.3%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송은경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이면서 남성성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여학생이면서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경우가 전체의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고등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비율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48%가 남성성 정체감을 가지고 있고, 19%가 양성성 정체감, 4%가 여성성 정체감, 그리고 29%가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40%가 여성성 정체감, 27%가 양성성 정체감, 14%가 남성성 정체감, 그리고 19%가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비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Erez, Borochoy, & Mannheim, 1989).

둘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그리고 진로성숙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그리고 진로성숙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

로성숙의 하위영역 중에서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에는 성별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그리고 진로성숙에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고, 진로성숙의 다섯 개 하위영역에도 모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관련 변인에 있어서 성별은 차이가 적지만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지만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아미(2000)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 외국에서는 성차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성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의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해 보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연령이나 계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현주(2000)나 이기학·이학주(2000)의 경우 연구대상이 모두 대학생이었고 조아미(2000)의 경우에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이 연구대상이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이 연구대상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이 연구대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본다. 즉,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에 있어서 성차가 없지만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진로의사결정 효

능감(정확한 자기평가, 직업정보의 수집, 목표선택, 장래계획성, 문제해결)을 전체적으로 분석했느냐 아니면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했느냐에 따라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현주(2000)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을 하위영역으로만 나누어서 분석했고, 조아미는 전체적으로만 분석한 반면, 이기학·이학주(2000)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을 전체와 하위영역별로 분석했다. 이현주(2000)는 다섯 개의 하위영역 중 세 개 하위영역(장래계획 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에 있어서 성차가 있다는 발견한 반면 이기학·이학주(2000)는 하나의 하위영역(문제해결)에서만 성차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조아미(2000)와 이기학·이학주(2000)는 전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다섯 개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하위영역 중에서 직업정보의 수집과 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적은 영역에 대해서는 여학생도 남학생만큼 효능감이 있지만 문제해결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을 전체적으로 보거나 이를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다른 후속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Gianakos, 1995).

성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었다. 진로성숙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외국의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로성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거나(Luzzo, 1993b), 여학생의 진로성숙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난 반면(Luzzo, 1995),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진로성숙 수준을 보이는 영역이 있기도 하고 그 반대인 영역도 있었다(조아미, 2000; 이기학·이학주, 2000). 한편 성별과 진로의사결정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고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진로의사결정의 경우도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경우 국내의 연구는 예외이지만 대체로 성차가 없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반면(Taylor & Betz, 1983),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의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ianakos, 1995). 진로의사결정의 경우도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알려진 반면(조아미, 2000)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계식, 이재창, 1997).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성별 자체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의한 차이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Erez, Borochov, 그리고 Mannheim(1989)는 성별이 직업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역할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직업가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진로관련 변인들에 있어서 성별보다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진로발달 분야에 있어서 성차보다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차이

가 주목할 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는 진로선택의 차이로 이끌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진로발달 차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진로에 있어서 성별이 아니라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때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론적으로 보면 일치모델, 남성성 모델, 양성성 모델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남성성 정체감이 여성성 정체감과 같거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여성적인 직업으로 여성성 정체감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조차도 높은 남성성이 더욱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Kirchmeyer & Bullin, 1997). 이것은 적어도 진로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성 정체감보다는 남성성 정체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보면 남성성 정체감이나 여성성 정체감을 확실히 나타내는 경우보다 양성성 정체감이나 미분화 정체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진로분야에서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개인이 유리하다면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이나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들의 불이익이나 그 해결방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희정 (1987). 직업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대룡 (1996). 교사의 성역할유형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학생의 성역할유형에 대한

- 교사의 기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경 (1994). 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간의 관련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가호 (1994).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발달에 관한 연구: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역할정체감,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5, 127-144.
- 유계식, 이재창 (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 동기 및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259-288.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127-136.
- 이병인 (1991). 가정환경, 성역할정체감, 성취동기와 직업포부수준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자 (1994). 국민학생의 진로의식과 자아개념 및 성역할정체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1996). 유치원 아동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유계식 (1996).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 진로결정유형간의 관련분석과 이들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교육연구논총, 13, 111-145.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38, 235-257.
- 이홍림 (1985). 고교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실현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정 (1987).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공회피동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정 (1987). 중년 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하경, 서병숙 (1992).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156-167.
- 장휘숙 (1999). 청년심리학. 학지사.
- 전은경 (1992). 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4), 43-62.
- 조인선 (1986).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역할태도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립, 김영희 (2000). 한국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15.
- 한정신 등 (1993). 여성의 정치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I). 아세아여성연구, 32, 169-212.
- 한정신 등 (1994). 여성의 정치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II). 아세아여성연구, 33, 155-245.
- Bem S. L. (1975).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rgeron, L. M. & Romano, J. L. (1994). The

-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ducational indecision, vocational indecision, and gender.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5, 19-24.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Academic Press.
- Betz, N. E., Heesacker, R. S., & Huttelworth, C. (1990). Moderators of the congruence and realism of major occupational plans in college stud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69-276.
- Burnett, J. W., Anderson, W. P., Heppner, P. P. (1995). Gender roles and self-esteem: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23-326.
- Erez, M., Borochov, O., & Mannheim, B. (1989). Work values of youth: Effects of sex or sex role typ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4, 350-366.
- Fouad, N. A., Smith, P. L., & Enochs, L.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evidence for the middle school self-efficacy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 17-30.
- Gianakos, I. (1995). The relation of sex role identity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6, 131-143.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Kirchmeyer, C. & Bullin, C. (1997). Gender roles in a traditionally female occupation: A study of emergency, operating, intensive care, and psychiatric nurs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78-95.
- Larson, J. H., Butler, M., Wilson, S., Medora, N., & Allgood, S. (1994). The effects of gender on career decision problems in young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79-84.
- Luzzo, D. A. (1993a).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6, 137-142.
- Luzzo, D. A. (1993b). Valu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4-195.
-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19-326.
- Matsui, T. (1994). Mechanisms underlying sex differences in career self-efficacy expect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 Behavior*, 45, 177-184.
- Nevill, D. D. & Schlecher, D. T. (1988). The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assertiveness to willingness to engage in traditional/nontraditional career activiti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91-98.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Peterson, S. (199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academic integration of underprepared college students: Variations based on backgrou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8, 77-115.
- Taylor, K.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on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v.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7-31.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원 고 접 수 일 : 2001. 9.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1. 12. 20

게 재 결 정 일 : 2002. 2. 28

K C I

The Effects of Adolescents' Gender and Sex-Role Identity on Career-Related Variables

Ami Cho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1) to investigate frequency and percent of sex-role identity type by gender, (2)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areer-related variables(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gender and sex-role identity, and (3) to analyze relative importance of gender and sex-role identity on career-related variabl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95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Male students were 228 and female students were 265.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270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225.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developmental difference in terms of sex-role identity type. Second,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of career-related variables by gender while significant differences by sex-role identity type. Third, gender did not explain the variances of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whereas sex-role identity type did.

Key Words :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maturity, sex-role identity*